

# MERITZ

## 유통/화장품 Weekly



유통/화장품 Analyst 양지혜  
02. 6098-6667  
jihye.yang@meritz.co.kr

### 1. 전주 동향

#### 유통

12월 둘째주 유통업종 주가는 전체 시장 대비 소폭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현대백화점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한성이 SK네트웍스 패션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현대백화점의 브랜드 컨텐츠에 대한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인식되면서 현대백화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GS리테일은 4분기 편의점 사업부의 양호한 실적 흐름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출범과 연말 배당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하였음. CJ오쇼핑은 자회사 CJ헬로비전의 케이블 사업자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 구조조정과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CJ오쇼핑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됨

#### 화장품 (생활소비재)

12월 둘째주 화장품업종 주가는 지난주에 이어 전체 시장 수익률 대비 소폭 상회하였음. 최근 화장품업종 주가 하락에는 금리인상, 환율 변동성, 그리고 중국 관련 정치적 리스크 등이 주가에 심리적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외부 변수들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반등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토니모리, 코스맥스, 뉴트리바이오텍 등 중소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음. 4분기 성과급 지급 등 비용집행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콜마. 아모레G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음

### 2. 금주 전망

#### 유통

단기적으로 유통업종 주가는 완만한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됨. 주요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식품 판매비중이 높은 편의점과 할인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음. 한편 시내 면세점 입찰 결과 주요 유통 3사인 롯데, 현대, 신세계가 라이선스를 추가 획득하면서 특히 롯데쇼핑의 경우 롯데그룹 지주회사 전환의 핵심인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전망. 반면 호텔신라의 경우 유통 3사의 적극적인 면세 시장 진입으로 경쟁심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중장기적으로 불황기 소비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가격보다 가치에 대한 민감도 강화, 무엇보다 소비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할 시점

#### 화장품 (생활소비재)

4분기 시장 컨센서스가 다소 높아 화장품업종 주가는 당분간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만 아직까지 정치적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실질적인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함. 2017년 화장품 산업 성장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크게 낮은 상황이라 중국 관련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에는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음. 여전히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글로벌 화장품업체 (12MF 평균 PER 27배) 대비 할인된 대형 화장품 업체들과 2017년 신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매수를 고려할 수 있겠음

###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 유통

##### 관심종목

##### BGF리테일 (027410):

구조적인 소비 트렌드 변화와 즉석식품 등 상품력 강화에 따른 자체적인 성장성이 부각되고 실적 또한 양호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전망. 다양한 서비스 상품 개발로 고객 매장 방문빈도 또한 더욱 높이고 있음

##### 롯데하이마트 (071840):

2016년말부터 신규 분야에 따른 입주시기 집중, 대형 가전제품 판매에 긍정적인 전망. 중장기 상품력 강화 꾸준히 진행 중, 온라인 및 신채널 확장 가능성 잠재. 과도한 저평가 해소 전망

##### 종목 코멘트 (탐방)

##### 롯데쇼핑 (023530)

- 4Q 동향: 10월 기준점성장을 백화점 -3%, 할인점 0%, 슈퍼 플러스 기록하였으나 11월은 10월 대비 모두 약화되었음. 4Q 부진 예상
- 백화점: 지난해 4Q 영업이익 기저가 높은 편임. 촛불시위에 따른 본점 영향은 크지 않으나 소비심리 악화가 실적 부진의 주원인으로 판단됨
- 할인점: 특화샵 리뉴얼로 전환 매장은 20% 이상 매출 신장. 다만 고정비성 비용 증가로 기준점성장을 부진 상황에서 영업이익 감소 불가피
- 편의점: 지난해 담배재고차익과 VAN수수료 부담 완화로 이익률 개선세 지속될 전망. 롯데그룹 차원에서 코리아세븐 pre IPO 추진중

#### 화장품 (생활소비재)

##### 관심종목

##### 아모레G (002790)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등 비상장 자회사들의 높은 성장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17% 성장 전망. 뷰티산업 확장에 따른 전문 헤어케어, 건강기능식품 및 메디컬 뷰티 시장에서도 의미있는 성과 기대

##### LG생활건강 (051900):

2017년 면세 채널 성장을 둔화에도 프레스티지 제품 비중 확대로 영업이익률 개선 지속될 전망. 최근 생활용품 관련 글로벌 파트너십 및 해외 성장 전략을 가시화하고 있음. 현 주가는 역사적 최하단 수준

##### 종목 코멘트 (탐방)

##### 한국콜마 (161890)

- 국내법인: 홈쇼핑, 브랜드샵, 드럭스토어 납품 브랜드들의 꾸준한 성장과 유통사 PB 및 해외수출 고신장으로 양호한 매출 성장 지속될 전망
- 연결기준으로 4분기부터 미국법인 실적 반영될 예정. 매출액 100억원, 영업이익률 7.5% 정도 예상되며 내년 10% 수준의 자체적인 성장 전망
- 북경콜마 2016년 기준 매출액 600억원 정도 예상됨. 색조 신제품의 오더 증가로 영업이익률은 9% 수준 전망
- 캐나다 CSR 인수에 따른 자문수수료와 임금인상 및 인센티브 등 (40~50억원 추산)으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 하회할 전망

## 4. 주요 뉴스

### 유통

**면세점 '유통빅3'시대 열린다:** 17일 진행된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발표 결과 롯데·현대·신세계 등 '유통 빅3'가 나란히 특허 획득에 성공하며 면세업종에도 '유통 빅3' 시대가 열리게 됨. 면세업계가 연 매출 10조원의 소매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 간 국내 유통업계를 주도해 온 유통업체들의 개별 경쟁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 이번 특허전의 결과 신규 면세점은 모두 강남에 세워짐.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며 서울 명동 중심의 관광에서 강남 등지로 관광객이 이동하는 현상을 반영했다는 해석 (서울경제, 12/17)

**'주말 촛불'에 유통가 희비:** 온라인몰 11번가는 지난달 1일 하루 만에 460억여원의 상품을 판매했다고 12일 밝혔. 2008년 11번가 운영을 시작한 뒤 최고 거래액. G마켓과 옥션은 지난달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6%, 24% 증가. 이마트몰의 지난달 매출은 7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4.8% 증가함. 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오프라인 점포들은 고전하고 있음. 이마트는 지난달 8,51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대비 1.0% 감소.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을 포함한 할인점 전체 매출은 3.9% 감소 (한국경제, 12/13)

**신세계 '면세점 유치에 3500억 투자':** 신세계디에프가 서울 시내 추가 면세점 특허를 얻게 되면 앞으로 5년간 3500억원을 서초·강남 일대 관광 활성화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내비침. 신세계디에프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최종 프레젠테이션(P)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 신세계디에프는 서초·강남지역이 신규 면세점이 들어설 최적의 입지라는 분석을 내놓음.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서초·강남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12년부터 15년까지 연평균 19% 증가 (매일경제, 12/13)

**점음의 거리 파고든 롯데 미니백화점:** 롯데백화점의 패션전문점 '엘큐브(ei CUBE)'가 3호점까지 늘리며 성공적으로 안착. 롯데백화점은 최근 오픈한 엘큐브 이대점과 가로수길점에서 일평균 매출이 3,000만원을 넘어 서면서 기존 목표 대비 실적이 10% 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 또한 지난 3월 엘큐브 1호점 홍대점 오픈 후 9개월 동안 과거 백화점을 방문하지 않았던 신규 고객 13만명이 엘큐브를 찾았고 이 중 약 20%는 엘큐브 방문 이후 롯데백화점으로 신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롯데백화점은 엘큐브의 성장을 발판 삼아 2020년까지 다양한 전문점 매장을 1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매일경제, 12/16)

**사드 보복 수위 낮추나...중, 선양 롯데타운 허가:** 롯데그룹이 중국 선양 시에서 추진 중인 지상 63층 규모의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에 대해 선양시 당국이 이달 초 토지사용허가 증서인 '토지증'을 내준 것으로 13일 확인되었음. 중국, 선양 롯데타운 허가 이어 국내기업 배터리 장착한 전기버스에 보조금 지급 전망. 중국 규제 지속될 투자·고용 위축, 한국기업 압박 속도 조절 나선 듯 (서울경제, 12/13)

### 화장품 (생활소비재)

**중국 외 유럽시장까지 'K-뷰티' 영토 확장:** 내수 시장 침체와 중국의 '한류 규제' 등에도 'K-뷰티'는 중국 외 유럽시장에서 성과를 내며 'K-뷰티' 영역을 넓혀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화장품 3분기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7% 증가. 3분기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예측한 올해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7.5% 증가한 35.6억 달러. 중화권 수출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화장품 강국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분석. 중국 시장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44%)과 일본(35%), 프랑스(120%) 등으로 수출 강세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설명 (CMN, 12/11)

**아마존 드론 택배·우버 자율주행 택시...AI서비스 시대, 한국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14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 인근 교외 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 배송에 성공했다고 발표. 세계 최대 차량공유 회사인 우버도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 김광현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캡) 센터장은 "더 이상 글로벌 기업들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국내에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함 (한국경제 12/16)

**대구에도 '쇼핑 신세계' 열린다:** 신세계백화점은 국내 최초의 민자 복합환승센터인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안에 대구점을 15일 개점한다고 13일 밝혔. 신세계백화점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의 KTX와 기차 이용객이 연간 2000만명에 육박해 대구점이 신세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 겸 동대구복합환승센터점 대표는 "세계 최대 백화점인 부산 소재 신세계 센텀시티점에 버금가는 매머드급 규모"이라며 "대구점 투자비는 8800억원으로, 신세계백화점 사상 단일 점포 투자로도 최대치"라고 설명 (매일경제, 12/14)

**출찍 큰 편의점, 대형마트 잡는다:** 12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GS리테일 편의점 사업(GS25)의 3·4분기 누적 매출은 4조1,240억 원으로, 올 한 해 매출은 5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2015년 매출대비 20% 가량 성장한 것으로, 불과 3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74%나 확대. 편의점 매출의 대형마트 추월은 1~2인 가구 증가 및 소비행태 변화가 편의점 숫자의 폭발적 증가를 이끈데다가 주류·도시락 등 특정 상품군의 매출 급증을 견인한 결과라는 분석 (서울경제, 12/13)

**올해 편의점 '대박상품', 컵얼음·도시락·원두커피:** 올해 편의점에서는 컵얼음, 도시락, 원두커피 등 편의점 자체상표(PB) 상품이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남. 13일 편의점 CU에 따르면 올해 1~11월 판매량 기준 1위 상품은 얼음을 컵에 담아 파는 '멜라페 컵얼음'. 세븐일레븐은 전국 4200여개 점포에서 판매하는 원두커피 세븐카페가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 매출 기준 순위로는 도시락이 강세 (한국경제, 12/14)

**몸값 뛰는 IPTV...홈쇼핑 송출률 2년 연속 20% ↑:** 시장 점유율 높아져 대폭 인상. 케이블은 수수료 인하 '대조'. 홈쇼핑사들은 그동안 오래 전부터 송출을 해왔던 케이블사들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왔으며 최근 점유율이 비스듬히지면서 홈쇼핑사들이 IPTV 수수료는 높이고 케이블 수수료는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서울경제, 12/15)

**이랜드리테일 이르면 내년 5월 상장. 이달 말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랜드그룹 창사 이래 첫 IPO:** 이랜드는 지난 2003년 법정관리 중이던 (주)뉴코아를 인수한 뒤 이랜드리테일로 사명을 변경 올 3·4분기 기준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조2,874억원, 영업이익은 13% 늘어난 1,785억원을 기록. 직매입 형태의 아웃렛을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리테일은 전국에 53곳의 점포를 운영. 지분 63.5%를 보유한 모회사인 이랜드월드의 패션업 노하우를 접목한 자체상표(PB)와 생활용품 전문점 모던하우스, 농수산물 유통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김스클럽 등의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음 (서울경제, 12/16)

**성과급 700%...판타지 버린 에뛰드, 실적 주름 폈다:** 올해 에뛰드는 성과급 700%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함.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13억원으로 작년(24억원)보다 1200%가량 뛰었음. 작년 1.2%였던 영업이익률은 올해 13%로 증가. 에뛰드는 내년부터는 해외 시장 확대에 더 신경 쓸 계획이며, 매출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에뛰드 관계자는 "현재 230개인 해외 매장 수를 2020년까지 50% 이상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 (한국경제, 12/12)

### 5. 주요종목 Valuation

업종별	기업명	종목코드	주가 (원)	시가총액 (백만원)	PER(X)		PBR(X)		ROE(%)	
					2016C	2017C	2016C	2017C	2016C	2017C
유통	롯데쇼핑	A023530	226,000	7,116,942	23.0	17.6	0.4	0.4	1.9	2.5
	현대백화점	A069960	113,500	2,656,177	9.4	8.4	0.7	0.6	8.0	8.2
	신세계	A004170	178,500	1,757,365	6.3	10.0	0.5	0.5	8.9	5.5
	CJ오쇼핑	A035760	162,600	1,010,643	12.0	10.1	1.3	1.2	11.8	12.7
	GS홈쇼핑	A028150	173,300	1,137,281	11.0	11.0	1.1	1.0	10.0	10.0
	현대홈쇼핑	A057050	109,000	1,308,000	10.9	9.7	1.0	0.9	9.4	9.8
	엔에스쇼핑	A138250	148,000	498,701	7.7	7.8	1.3	1.1	17.9	15.2
	이마트	A139480	194,000	5,407,909	15.9	13.9	0.7	0.7	4.7	5.2
	GS리테일	A007070	48,600	3,742,200	17.7	18.3	1.9	1.8	12.9	10.3
	BGF리테일	A027410	84,500	4,186,774	23.9	20.5	4.6	3.9	20.7	20.4
	롯데하이마트	A071840	45,750	1,080,053	9.6	8.7	0.6	0.5	6.2	6.4
	아이마켓코리아	A122900	10,700	384,594	12.5	11.2	1.0	0.9	8.0	8.7
	호텔신라	A008770	50,700	1,989,880	50.7	21.8	2.5	2.3	5.5	11.5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A027390	35,800	214,805	(11.4)	1,074.0	0.9	0.9	(6.9)	1.2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A090430	325,500	19,028,239	33.2	26.8	5.7	4.8	18.6	19.7
	아모레G	A002790	127,500	10,173,350	30.7	24.7	3.7	3.3	13.6	14.3
	LG생활건강	A051900	869,000	13,572,213	24.9	22.3	5.7	4.6	26.8	24.2
	코스맥스	A192820	120,000	1,079,941	34.8	24.1	9.8	4.8	28.8	29.2
	한국콜마	A161890	69,100	1,458,020	27.1	21.1	5.4	4.4	22.0	22.8
	연우	A115960	37,850	469,264	21.2	17.2	2.6	2.3	13.0	14.0
	대봉엘에스	A078140	12,100	134,148	14.4	12.1	2.1	1.8	15.6	15.7
	바이오랜드	A052260	17,650	264,750	23.0	17.3	2.0	1.9	10.0	11.2
	에이블씨엔씨	A078520	21,550	331,411	15.8	13.1	1.6	1.5	10.8	11.9
	토니모리	A214420	23,600	416,304	24.5	21.6	3.2	2.9	13.8	14.3
생활소비재	코웨이	A021240	90,600	6,920,074	28.1	18.7	5.2	4.6	19.7	27.4
	쿠쿠전자	A192400	134,500	1,318,552	16.4	14.4	1.9	1.7	14.9	15.2
	뉴트리바이오텍	A222040	59,000	608,526	35.7	21.6	7.5	5.6	23.6	30.4
	콜마비엔에이치	A200130	18,850	556,896	17.5	17.3	4.2	3.5	27.9	21.5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6. 주요 해외 업체 Valuation

업종별	기업명	종목코드	주가 (각국통화)	시가총액 (백만달러)	PER(X)		PBR(X)		ROE(%)	
					2016C	2017C	2016C	2017C	2016C	2017C
유통	노스트롬	JWN US	50	8,750	17.0	16.1	9.6	8.9	57.5	77.2
	월마트	WMT US	71	218,135	16.4	16.4	2.7	2.7	17.0	16.9
	이베이	EBAY US	30	33,102	15.7	14.2	4.6	4.2	30.5	28.9
	세븐 & 아이홀딩스	3382 JP	4,547	34,278	38.5	19.3	1.7	1.6	4.2	8.5
화장품	로레알	OR FP	169	99,174	26.3	24.5	3.9	3.6	14.7	15.0
	에스티로더	EL US	76	27,897	22.2	20.0	9.5	9.4	37.1	50.1
	시세이도	4911 JP	2,983	10,140	38.2	36.2	2.9	2.7	8.1	7.6
	상해자화	600315 CH	27	2,578	40.3	33.0	3.1	2.9	7.2	8.4
생활소비재	패스트리테일링	9983 JP	43,130	38,886	41.3	36.3	6.4	5.7	17.1	17.4
	나이키	NKE US	51	84,804	21.7	19.2	6.9	3.4	31.4	34.0
	LVMH	MC FP	179	94,921	22.5	20.6	3.4	3.1	15.6	15.6
	조지루시	7965 JP	1,543	952	14.9	12.0	1.7	1.5	11.3	13.0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7. 주요 종목 기간별 수익률

업종별	기업명	Price Change(%)						Relative to market(%)					
		1W	1M	3M	6M	12M	YTD	1W	1M	3M	6M	12M	YTD
유통	롯데쇼핑	0.9	(3.0)	13.0	8.7	(1.7)	(2.8)	0.0	(6.2)	10.9	4.0	(5.4)	(6.9)
	현대백화점	3.7	(2.6)	(3.8)	(13.7)	(5.0)	(10.3)	2.8	(5.7)	(6.0)	(18.3)	(8.7)	(14.4)
	신세계	(1.1)	(4.6)	(7.5)	(11.0)	(24.7)	(22.4)	(2.0)	(7.7)	(9.7)	(15.6)	(28.4)	(26.5)
	CJ오쇼핑	1.6	1.5	4.6	(12.2)	(12.6)	(14.8)	0.7	(1.7)	2.4	(16.8)	(16.3)	(18.9)
	GS홈쇼핑	(2.0)	(3.9)	8.1	(2.6)	2.9	3.8	(2.9)	(7.0)	6.0	(7.3)	(0.8)	(0.4)
	현대홈쇼핑	0.0	0.0	(9.9)	(17.4)	(4.4)	(5.6)	(0.9)	(3.2)	(12.1)	(22.0)	(8.1)	(9.8)
	엔에스쇼핑	1.4	(5.4)	(9.8)	(13.5)	(20.6)	(20.2)	0.5	(8.6)	(11.9)	(18.1)	(24.3)	(24.4)
	이마트	(0.3)	6.3	25.2	11.8	(0.5)	2.7	(1.1)	3.1	23.0	7.2	(4.2)	(1.5)
	GS리테일	3.0	3.3	5.8	(3.8)	(4.7)	(9.7)	2.1	0.1	3.6	(8.4)	(8.4)	(13.8)
	BGF리테일	(3.3)	0.8	(6.4)	(16.4)	3.3	(1.5)	(4.2)	(2.3)	(8.6)	(21.0)	(0.4)	(5.7)
	롯데하이마트	1.1	1.9	7.4	(4.6)	(18.2)	(22.5)	0.2	(1.3)	5.3	(9.2)	(21.9)	(26.6)
	아이마켓코리아	3.9	(9.3)	(16.4)	(15.1)	(58.9)	(57.7)	3.0	(12.5)	(18.6)	(19.7)	(62.6)	(61.8)
	호텔신라	0.8	(4.9)	(21.3)	(19.5)	(37.8)	(34.4)	(0.1)	(8.0)	(23.4)	(24.1)	(41.5)	(38.5)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1	(8.8)	(25.9)	(32.2)	(63.8)	(63.7)	1.3	(12.0)	(28.0)	(36.8)	(67.5)	(67.8)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2.2	(7.8)	(13.9)	(21.1)	(21.1)	(21.5)	1.3	(11.0)	(16.0)	(25.7)	(24.8)	(25.6)
	아모레G	(1.5)	(10.5)	(16.7)	(21.8)	(13.6)	(13.9)	(2.4)	(13.7)	(18.8)	(26.4)	(17.3)	(18.0)
	LG생활건강	2.7	4.8	(10.7)	(18.1)	(15.2)	(17.2)	1.9	1.7	(12.8)	(22.7)	(18.9)	(21.4)
	코스맥스	4.4	(2.0)	(15.4)	(23.3)	(30.3)	(33.1)	3.5	(5.2)	(17.6)	(27.9)	(34.0)	(37.3)
	한국콜마	(2.4)	(6.5)	(23.1)	(27.0)	(22.3)	(27.2)	(3.3)	(9.7)	(25.2)	(31.7)	(26.0)	(31.3)
	연우	(1.3)	(9.3)	(9.5)	(18.3)	2.3	(7.0)	(2.2)	(12.5)	(11.6)	(22.9)	(1.4)	(11.1)
	대봉엘에스	1.7	(2.4)	(16.0)	(10.0)	31.2	21.2	0.8	(5.6)	(18.1)	(14.7)	27.5	17.1
	바이오랜드	2.0	(3.3)	(13.5)	(14.7)	(31.1)	(36.2)	1.2	(6.5)	(15.6)	(19.4)	(34.8)	(40.3)
	에이블씨엔씨	8.0	(2.5)	(7.5)	(39.9)	(4.7)	(7.9)	7.2	(5.7)	(9.7)	(44.5)	(8.4)	(12.0)
	토니모리	7.8	(9.0)	(25.4)	(21.8)	(10.0)	(6.5)	6.9	(12.2)	(27.5)	(26.4)	(13.7)	(10.6)
	생활소비재	코웨이	1.8	4.1	(2.9)	(11.2)	4.9	7.7	0.9	1.0	(5.0)	(15.8)	1.2
쿠쿠전자		3.1	(3.6)	0.0	(17.0)	(40.8)	(41.4)	2.2	(6.7)	(2.1)	(21.6)	(44.5)	(45.5)
뉴트리바이오텍		5.2	(10.3)	2.8	(23.8)	N/A	48.8	4.3	(13.5)	0.7	(28.4)	N/A	44.7
클라비엔에이치		3.0	(3.3)	(39.4)	(50.3)	(42.0)	(51.0)	2.1	(6.5)	(41.5)	(55.0)	(45.7)	(55.1)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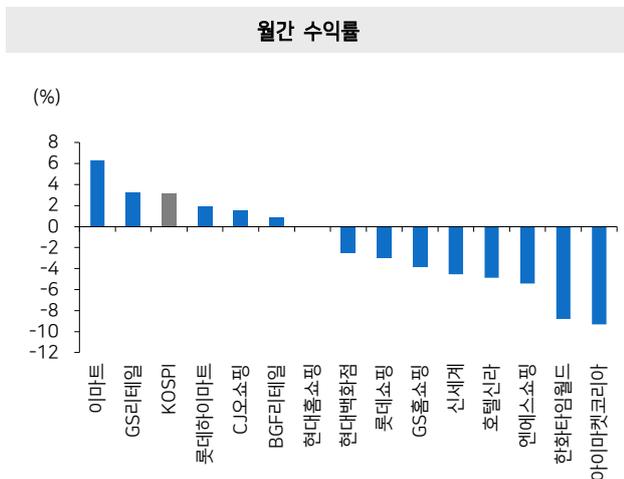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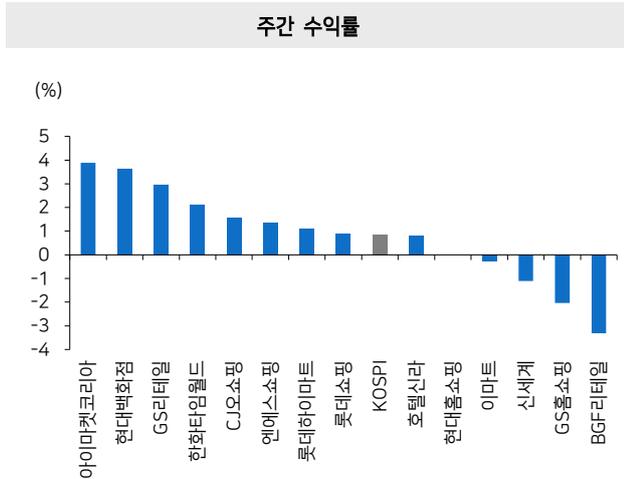
### 8. 해외 주요 업체 기간별 수익률

업종별	기업명	Price Change(%)						Relative to market(%)					
		1W	1M	3M	6M	12M	YTD	1W	1M	3M	6M	12M	YTD
유통	노스트롬	(16.9)	(14.4)	(1.6)	34.7	(0.2)	1.3	(16.8)	(17.8)	(7.1)	25.7	(12.8)	(9.1)
	월마트	1.3	3.6	(2.6)	0.0	20.6	15.8	1.3	0.1	(8.2)	(9.0)	8.0	5.3
	이베이	(1.2)	3.2	(6.8)	24.5	7.8	7.8	(1.1)	(0.3)	(12.4)	15.4	(4.8)	(2.7)
	세븐 & 아이홀딩스	4.4	6.3	2.7	5.4	(16.5)	(17.9)	2.2	(1.7)	(14.7)	(19.0)	(18.7)	(19.9)
화장품	로레알	1.1	6.1	2.7	4.8	7.2	8.9	(0.3)	(1.2)	(7.3)	(10.4)	2.7	4.7
	에스티로더	(4.5)	(1.7)	(13.2)	(17.2)	(12.9)	(13.5)	(4.4)	(5.1)	(18.8)	(26.2)	(25.5)	(24.0)
	시세이도	4.5	1.2	10.4	12.5	15.1	17.9	2.4	(6.8)	(7.0)	(11.8)	12.9	16.0
	상해자화	(2.7)	(3.3)	(6.0)	(2.2)	(31.4)	(32.4)	0.7	(1.1)	(9.2)	(10.5)	(18.7)	(20.7)
생활소비재	패스트리테일링	1.3	7.3	25.5	56.6	(2.1)	1.1	(0.9)	(0.7)	8.1	32.2	(4.3)	(0.8)
	나이키	(1.5)	(0.4)	(7.7)	(5.2)	(20.8)	(18.5)	(1.5)	(3.8)	(13.3)	(14.2)	(33.4)	(29.0)
	LVMH	1.8	8.4	22.2	30.3	23.6	23.7	0.3	1.1	12.2	15.1	19.1	19.4
	조지루시	4.9	15.2	(5.0)	(19.2)	(17.0)	(10.8)	2.8	7.3	(22.4)	(43.5)	(19.1)	(12.7)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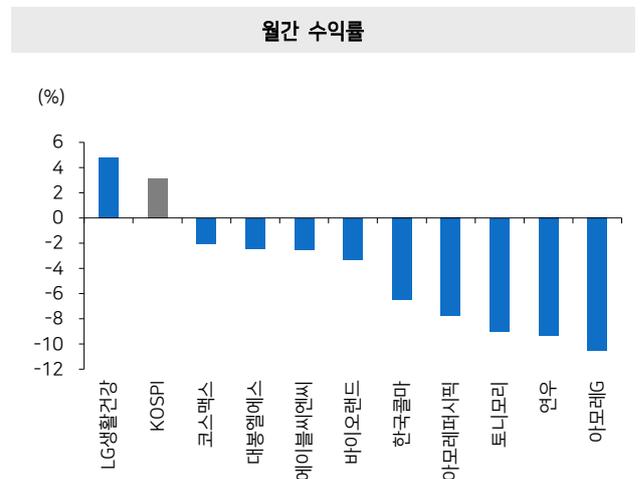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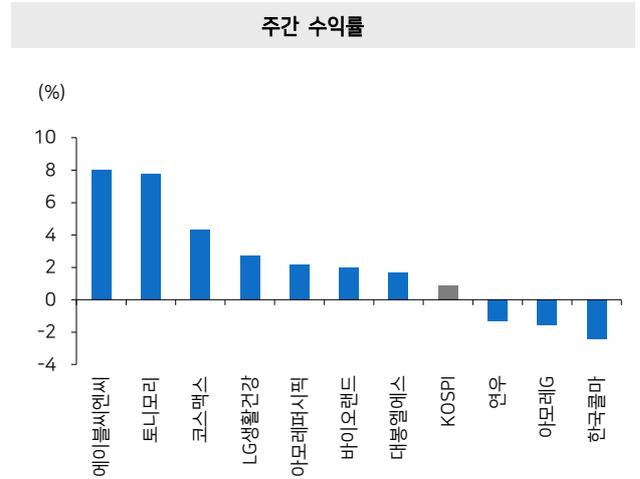
### 9. 주간/월간 수익률

#### 유통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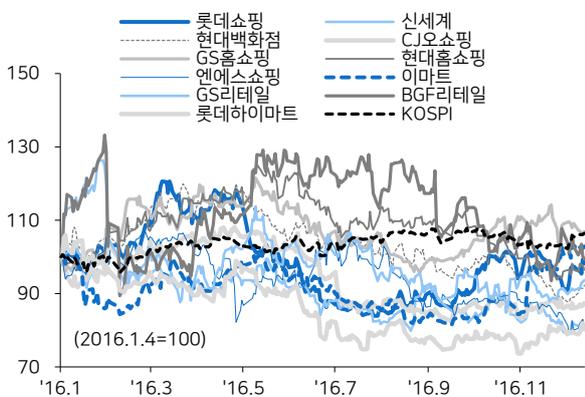
#### 화장품 (생활소비재)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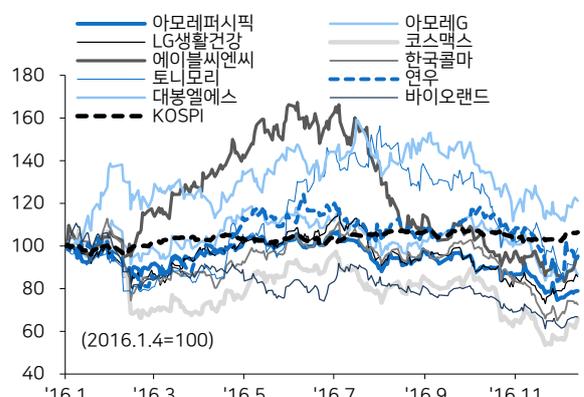
### 10. 주가 추이

####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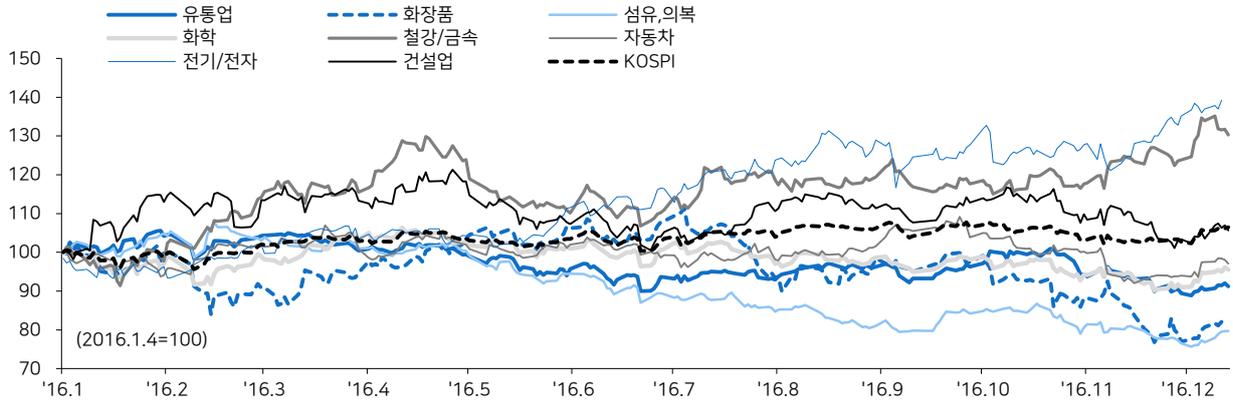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화장품 (생활소비재)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11. 업종별 지수 추이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6년 12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6년 12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6년 12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양지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등급 관련사항 (2016년 11월 7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기업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증가대비 4등급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Trading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5% 이상 ~ +20% 미만 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 +5% 미만 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미만
산업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 투자의견 비율

투자의견	비율
매수	87.4%
중립	12.6%
매도	0%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